

이태석의 삶

의사이자 살레시오회 수도사제였던 이태석. 세례명은 요한(John Lee)이다. 그래서 그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Tonj) 마을 사람들은 이태석의 세례명을 따라 그를 '쫄리'라고 불렀다. 20년 넘게 이어진 오랜 내전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톤즈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쫄리 신부는 자상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이태석은 1962년 송도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부산광역시 남부민동에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4남 6녀 가운데 아홉 번째로 태어났다. 홀 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놀이터와도 같았던 집 근처의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일찍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활발하고 감수성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갔다. 그에게 성장 과정의 가난은 오히려 다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자 하는 종교적 자각의 배경이 되었다. 나아가 훗날 톤즈의 가난한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이태석은 인턴 과정을 수료한 뒤 군의관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그는 안정된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택했다. 어머니와 가족의 만류를 눈물로써 설득한 이태석은 1991년 살레시오회에 입회하고, 이듬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1997년 신학 공부를 위해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로 유학을 떠난 이태석은 자신의 선교지를 찾던 중 1999년 여름방학 기간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남수단의 톤즈를 최초로 방문하였다. 톤즈의 열악하고 비참한 모습에 크게 놀란 이태석은 이곳에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2001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된 이태석은 같은 해 12월 애초 결심대로 다시 톤즈로 갔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톤즈에 살면서 차분히 의료와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 나갔다.

이태석은 톤즈에서 반경 100km 내의 유일한 의사였다. 하루에 200명, 많게는 3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그의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한센병 같은 전염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부족 간의 전쟁으로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환자들도 이태석의 손을 거쳐 갔다. 이태석은 급한 대로 “마른 풀과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움막 같은 집”을 최초의 진료소로 삼았다. 이 초라한 진료소는 2004년 그가 직접 벽돌을 구워 가며 지은 12개의 병실이 있는 시멘트 건물로 발전하였다.

한편 “교육은 이곳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공감대 안에서 이태석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았다.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해 전쟁 중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을 보수하여 초·중·고등학교 11년 과정을 차근차근 꾸려 나갔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이태석은 학생들에게 손수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 주고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해 주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음악반은 훗날 35명으로 구성된 브라스밴드부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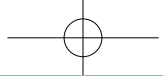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에 공식 후원회가 결성되는 등 의료선교 활동이 본궤도에 올라 한창이던 2008년 11월, 휴가로 귀국한 이태석은 입국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예기치 않은 진행성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다. 투병 중에도 이태석은 늘 톤즈와 아이들을 잊지 않고 걱정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이태석은 2010년 1월 14일 오전 5시 35분 선종하였다. 장지는 전남 담양군 천주교 광주교구 공원묘원 성직자·수도자 묘역.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이태석은 48세의 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향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다. 2010년 9월 개봉한 「울지 마 톤즈」의 상영을 계기로 이태석이 국민적 사랑을 받게 된 것, 그리고 국민들의 추천에 의해 이듬해인 2011년 이태석에게 국민훈장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이 추서된 것 등은 그 작은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614-7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인제의대
TEL. 051-890-6625 FAX. 051-895-1864
홈페이지. <http://med.inje.ac.kr>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34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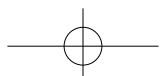
제3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이태석의 삶과 가치

일시 : 2013년 6월 7일 (금) 14:00~16:30 장소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인사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제3회 졸업생인 고 이태석(李泰錫)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개최해 왔던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와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말씀으로 심포지엄을 빛내 주실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엄국현 선생님, 살레시오회 김상윤 베드로 신부님, 사단법인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양종필 선생님, 그리고 순천향의대 가정의학과 신경숙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심포지엄의 주제는 '이태석의 삶과 가치'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이자 가톨릭 사제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배울 수 있을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을 회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려 깊고 인정이 많았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평범성은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종교적 성인(聖人)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이 평범성 속에서 성스러움보다는 사람다움을 느낍니다.

인제대학교의 창립정신인 '仁德濟世·仁術濟世' 중에서 '仁德濟世'는 덕을 앞세워 세상을 이롭게 하고, '仁術濟世'는 인술을 실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함을 말합니다. 이는 곧 의술(醫術)이 인덕(仁德)을 내포한 인술(仁術)임을 뜻합니다. 인술을 실천하는 의사가 꼭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사람다움을 의미하는 인(仁)과 이를 뒷받침하는 덕(德)을 쌓아 인술을 행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과 재학생 여러분이 평범성 가운데 비범성을 연마하여 좋은 의사, 좋은 의학생으로서 제2, 제3의 이태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6월 7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범주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개교 34주년 기념

제3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이태석의 삶과 가치

14:00~14:20

개회 인제의대 인문대학교실 김택중
인사말 인제의대 학장 이병두
축사 인제대학교 총장 이원로

14:20~1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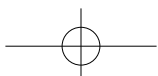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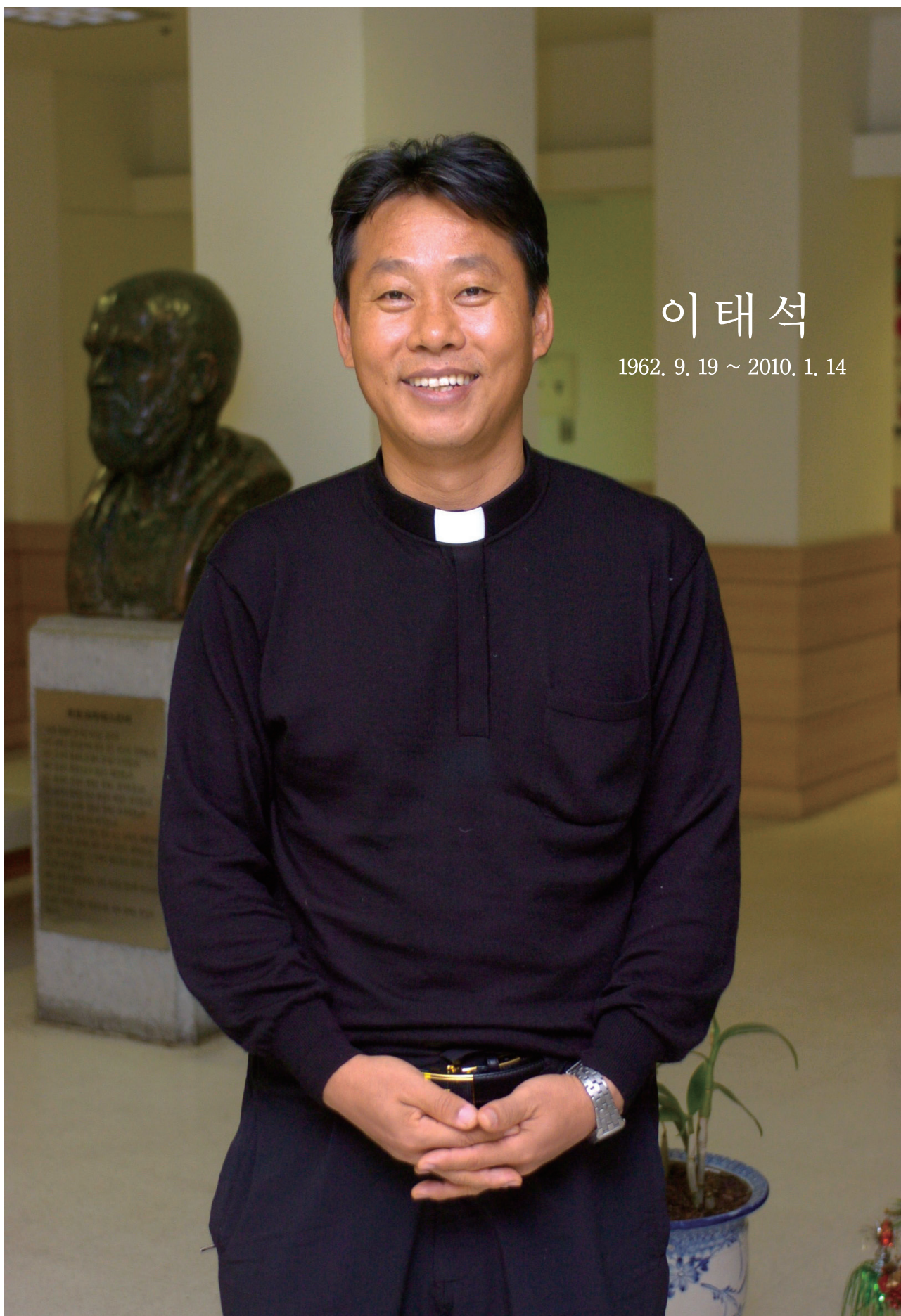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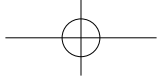
인덕제세 · 인술제세로 본 이태석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엄국현
살레시오인 이태석 살레시오회 신부 김상윤
의학생 이태석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양종필
의사 이태석 순천향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신경숙

15:40~16:10

패널 토론 엄국현, 김상윤, 양종필, 신경숙, 김택중

16:10~16:30

폐회
기념 촬영



年譜

故 이태석 신부 (李泰錫, Fr. John Lee Taeseok)

1962년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
의사, 살레시오회 수도사제

- 1962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출생
- 1981년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제3회)
- 1988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턴 수료
- 1991년 육군 군의관 전역(대위)
살레시오회 입회
- 1995년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수료
- 1999년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Tonj) 방문 후 선교 결정
- 2000년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오대학교 신학부 졸업
- 2001년 사제 서품
톤즈 선교, 의료, 교육 활동 시작
- 2005년 제7회 인재인성대상 특별상 수상
- 2006년 제23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 2008년 대장암으로 투병 시작
- 2009년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출간
제2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수상
- 2010년 선종
제1회 한국방송공사(KBS) 감동대상 대상 추서
-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강론 모음집 『당신의 이름은 사랑』 출간



제3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지금도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5초 정도는 환자들이 걷는 모습을 관찰하고 10초 정도는 아무 말 없이 환자들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진실된 순간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던가. 진실하지 않은 마음 탓에 진실하지 않은 눈들이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아픈 곳을 낱낱이 고백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지닌 환자들이 의사 앞에 앉았을 때 눈이 어찌 진실되지 않을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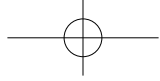
사기꾼이나 강도 또는 살인범들에게도 제일 진실된 순간은 몸이 아파 병원에 가 의사 앞에 앉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환자들이 정말 아픈 곳을 눈으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 머리는 모르고 있지만 눈은 마치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다. 의사로서 조금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땐 어떤 검사보다도 더 유용하게 쓰이며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이태석,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증보판, 2010, 100~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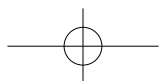
단단한 우리의 껍질을 부숩시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를 죽입시다. 그러면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사도, 신부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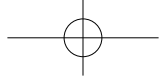
- 이태석, 『당신의 이름은 사랑』
2011, 140쪽.





제3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





인덕제세·인술제세로 본 이태석

인덕제세와 인술제세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따름이다. 이태석 신부가 의사의 안온한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인덕제세, 인술제세를 실천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신앙의 힘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제대학교가 설립된 이래 인덕제세, 인술제세라는 말은 인제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하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 선종 후 이태석 신부와 관련된 여러 책이 출판되면서 인덕제세, 인술제세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말이 되었다.

현대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시대다.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스트렝거는 『멘탈붕괴』(하늘눈, 2012)라는 책에서 진정한 삶이란 각자 고유한 개성, 의견, 세계관 등을 가지고 자신을 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창조하는 삶을 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태석 신부일 것이다. 고집 센 이태석 신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신학공부를 위해 의학의 길을 떠나기도 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의학적 기술이 매우 큰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훗날, 이태석은 의대 동창생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는다. 외과에 관심이 많았던 이태석은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등의 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편이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산모들이 죽어갔고, 또 많은 이들이 안과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피부에 생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는 휴가차 한국에 올 때면 늘 의대 동창생들을 찾아가 부족한 의학 지식을 메웠다. 이태석 신부는 친구들의 친절한 가르침과 조언을 경청하면서 열심히 배웠다. 바로 이 친구 의사들의 도움 덕분에 그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우광호, 『이태석 신부 이야기,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여백미디어, 2011, 65-68쪽)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인제공동체가 지녀야 할 정신적 지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인덕제세, 인술제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에피소드를 통해 잘 배울 수 있다. 의료 현장을 오래 떠나 있었던 이태석 신부에게 인제공동체가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모습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태석 신부는 의학을 공부한 뒤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이와 같은 공부법은 下學而上達의 방법으로 공부했다는 공자의 공부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또 그가 음악을 잘 했다는 것도 전통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태석 신부가 음악을 통해 남수단 어린이들의 마음을 치유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학문방법을 통해 얻은 큰 덕이 있는 인간이 이태석 신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덕이란 큰 덕이고, 큰 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배워야 하며, 그 배움을 실천하면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다(行道有得). 이태석 신부처럼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덕이 있는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큰 덕을 지닌 인간은 이 세상을 잘 건널 수 있고, 잘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다른 사람을 건져 함께 건널 수도 있다. 인덕제세, 인술제세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엄국현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부 교수, 시인
대표시집: 『집』 (1983), 『그대 사는 마을
까지』 (1993)

살레시오인 이태석 : 하느님의 사람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오 13:44~46)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 가장 값진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조차 더 큰 사랑을 온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다.

의대를 졸업한 젊은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가 살레시오회 입회를 고민하고 있었다. 당시 수련장 신부였던 미국인 신부는 그의 입회를 조심스러워하며 오히려 그가 가진 의료 지식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수도회에 입회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자신이 가진 모든 비교우위에 있는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 과감함과 용기가 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신학 수업에도 그는 아주 출중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모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회 입회를 결정하게 한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곳(서울 대림동 공동체로 소년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약식 재판을 거쳐 처분을 받아 단기·장기로 머물며 재사회화를 준비하는 일종의 교정시설)에서 2년 동안 배운 것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실습’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수도회의 장기 양성계획에 따라 로마 유학을 떠났고, 함께 떠난 다른 두 명의 형제와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선택이다.

사제 서품을 앞두고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할 때 그는 아프리카로 날아갔다. 이 역시 그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연한 환상보다 정확한 현실적 감각을 선호한 이태석 신부는 이러한 현실적 감각 위에 결정한 행동이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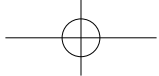
유학 후 돌아와 수도회 내에서 더 큰 일을 하여주리라 희망하였던 수도회 동생들은 그가 ‘선교사’로 떠난다는 이야기에 적잖이 놀랐음도 사실이다. 아프리카! 그것도 당시 40년 전쟁 중이던 남수단을 선택한 그는 종종 내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한 번 와서 봐야 한다. 그 가난하고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조차 하느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와서 봐야 한다!”

그는 안정을 포기하고 도전을 선택하였다. 그는 의술을 포기하고 교육을 선택하였다. 그는 풍요를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전을 통해 안정을 살았으며, 교육과 더불어 의술을 펼쳤고, 가난을 통해 더 큰 풍요로움을 가슴 가득 증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하느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아프리카의 돈 보스코’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김상운 베드로
살레시오회 신부
살레시오 피정센터 피정 담당



의학생 이태석 : 왜 우리는 이태석이라는 이름에 열광하는가?

나는 이태석 신부에 대해 친구로서 이야기해 달라는 질문이 가장 조심스럽다. 그는 이제 나에게 친구 이상의 대상이고 또 신부님이기 때문이다. 그를 존경 내지 흠모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나의 어쭙잖은 어린 시절 추억담에 돌팔매를 날릴까 걱정도 되지만, 그보다는 수도권 소속 신부라는 직분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누를 끼칠까 염려된다.

과연 인재의대에는 이태석뿐인가? 이 친구를 통해 해외 오지에서 더위와 풍토병과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는 많은 감동적인 동문들을 접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태석 신부보다 더한 고생을 하는 동문들도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 동문들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한 심적 갈등을 느끼면서 일하기도 하고,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희석시키기도 한다. 반면 이태석 신부는 태어나고 자란 가족은 있지만 같이 고생하고 부양하는 가족이 없어서 더욱 톤즈에 모든 열정을 쏟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과거 인재인으로서의 이태석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흔히 명사들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용꿈을 꾸고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개와 행동을 보였다는 위인전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태석은 그냥 보통의 조용한 의대생, 그러나 늘 음악과 운동에는 열성적인 인재의대의 한 학생이었을 뿐이다.

성직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의심해 본 적 없는, 우리가 보통 연상하는 성직자의 모델과는 거리가 먼 소심한 개구쟁이, 실없는 장난꾸러기, 음악과 운동을 좋아하는, 시험 때는 긴장해서 같이 날밤을 새던 의대생이었다. 이토록 친근감 있는 친구였고 보통 사람이었기에 우리 후배들 모두가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2의 이태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 세상이 이태석을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것은 아닌가? 성직자를, 그것도 수도회의 신부를 매스컴이 너무 우상화, 영웅시해서 수도권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맞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영웅시는 경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적당한 영웅시는 필요하다.

정신적 갈등이 넘쳐나는 세상 풍조 속에서 평범한 국민들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 학생들에게 적절한 멘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태석이라는 조명은 이러한 상황을 살뜰히 비추고 우리 모두에게 정신적인 희망을 제공한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훌륭한 멘토가 되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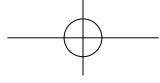
이제 이태석 신부는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도 이태석 신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아이들, 학생들이 많다. 더 알려져야 한다. 우리 인재인으로만, 부산 사람으로만, 수도권 소속 신부로만 기억되기엔 모자람이 있다.

물론 모두가 이태석 신부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다. 그러나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태석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을 치유하고 위안을 주며, 청소년들에게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망과 삶의 목표를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이태석 신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간직하던 봉사의 마음을 꺼내어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학생 시절을 아주 특이하게 보내지 않은 아주 평범한 학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양종필

남산정요양병원 원장
새부산산부인과 원장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운영
위원장



의사 이태석 : 우리는 이태석 신부 같은 의사로 살 수 있을까?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톤즈라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사제로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도우며 어우러져 살았다. 같이 사는 동료들 및 현지 주민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응급환자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지만, 병원운영이나 교육에 있어서는 늘 원칙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이는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기본이 되었다.

이태석 신부의 활동은 철저히 현지 주민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급이 아닌 그들의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이 되, 우월한 시혜의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에 마주하게 된다. 그 이면에는 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었으며,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쏟아야 할 수 있는 그 열정이 그리스도적 사랑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